

7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고용 실망’ 뉴욕 3주째 하락..다우 2.6%↓	2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고용지표에 대한 실망으로 급락세로 마쳤음. 다우 지수가 8,300선을, S&P500 지수가 900선을 내준 가운데 뉴욕증시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223.32포인트(2.63%) 하락한 8,280.7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9.20포인트(2.67%) 내린 1,796.5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26.91포인트(2.91%) 밀린 896.42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경기후퇴(recession) 완화 조짐과 함께 축소돼왔던 고용감소폭이 재차 확대되면서 악재로 작용했고 고용시장 침체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었음. 이에 따라 전날 부각됐던 하반기 경제 회복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음.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감소하고, 공장주문이 1년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됐지만 고용불안으로 촉발된 우려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음.
6월 고용감소폭 확대.. 실업률은 9.5%	최근 경기후퇴 완화 조짐과 함께 축소돼왔던 고용감소폭은 재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9.5%로 26년만에 최고치에 올랐음.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46만 7,000명 줄었다고 밝혔고 이는 전월(5월)의 32만 2,000명(수정치)보다 큰 감소폭.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32만 5,000명과 36만 5,000명도 넘어선 감소폭임. 실업률은 전월의 9.4%에서 9.5%로 높아졌고 이는 지난 1983년 8월 이후 26년만에 최고치. 월가 전망치였던 9.6%보다는 낮은 수준임.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 감소	반면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전망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27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1만 6,000명(계절조정) 감소한 61만 4,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61만 5,000명을 소폭 하회한 수준임.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건수(20일 마감기준)는 5만 3,000명 감소한 670만명을 기록했다.

제목	주요 내용
공장주문 `1년 최대폭 증가`	미국의 공장주문은 1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음. 상무부는 5월 공장주문이 전월대비 1.2% 늘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2008년 6월 이래 최대 증가폭. 전월의 0.5%(수정치)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9%보다 큰 증가폭임. 경기후퇴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기업들의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공장주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본격적인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임.
유가 `1개월 최저`	국제 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여파로 하락, 1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58달러(3.7%) 내린 66.73달러에 마쳤음. 이는 지난달 3일 이후 최저 수준임.
ECB 총재 "유로존 경제 내년 중반 안정화"	ECB는 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갖고 1%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 ECB의 금리동결은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 블룸버그통신 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 60명중 58명이 금리동결을 예상.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 경제의 안정화 및 회복시기는 2010년 중반 무렵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금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
외국인 韓평가 달라졌다..2분기 FDI 62% 급증	2일 지식경제부는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29억7,000만달러(신고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38.2% 급감을 기록.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6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수준을 소폭 넘어섰음.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경제 위기로 관망세에 있던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의 안정세와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음.
30대그룹 `올해 72조 투자..10%↓`..신규채용도 3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투자 및 고용창출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올해 30대 기업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10.7% 줄어든 72조6,73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 가운데 시설투자는 55조7,556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R&D) 투자는 16조9,176억원으로 작년보다 1.7% 소폭 증가. 전경련은 "30대 그룹은 올 상반기 전년동기(38조7,000억원)대비 15.7% 줄어든 32조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작년보다 10.7%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07년(68조원)에 비해선 6.9%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